

SUN "선수 기용 이름값 땀다"

포수 김상훈 대신 한성구 1군에

'이준호 효과' 절실한 선수에 기회

KIA 타이거즈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바람의 중심에는 '절실함'이 있다.

삼성과의 홈 3연전이 시작된 5일, KIA는 송산-한성구 두 선수로 포수 자리를 꾸렸다. 주장 차일목에 이어 부진이 계속된 안방마님 김상훈의 엔트리가 말소되면서 과거에 가까운 배터리가 구성됐다. 송산은 2008년 14경기에 출전한 것을 끝으로 군복무로 인한 공백기가 있었다. 한성구는 신고선수 출신의 무명선수.

선동열 감독은 "절실함, 절박함이 있어야 한다. 선수들이 내가 아니면 안될 것이라는 생각이 버려야 한다. 기회가 되면 절실한 선수들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한성구의 경우 2군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고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하는 것에 따라 앞으로의 결과도 달라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름값이 아닌 절실함으로 팀을 만들어가겠다는 선 감독의 구상은 엔트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마운드에는 루키 박지훈·홍성민 그리고 1군 경험이 없는 임기준이 배치되어 있고, 역시 신인왕 후보 이준호·윤완주는 5일 나란히 스타팅 멤버로 나서 외야를 지켰다.

특히 이준호와 한성구는 선 감독이 연출하는 극적인 드라마의 주인공이다. 신고선수로 힘들게 프로무대를 두드렸던 두 선수는 지난해 그리고 올 시즌 정식 선수로 등록이 됐다. 그리고 전력의 선수였던 이준호와 한성구는 올 시즌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나란히 1군 엔트리까지 꿰찼다.



포수 한성구

이준호는 간절하게 그라운드를 뛰며 이종범의 은퇴와 신종길의 부진으로 생긴 외야 자리를 차지했다. 이준호의 안타 하나, 호수비 하나는 2군 선수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됐다.

이준호가 바람을 일으켰고, 한성구가 그 바람을 일으켰다. 프로 지명을 받지 못했던 한성구는 새벽 시장을 뛰는 등 야구를 접고 사회생활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세계에서 야구에 대한 절실함을 깨달았다. 배팅볼 투수로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었던 한성구는 신고선수에서 정식선수 그리고 1군 등록까지 차근차근 올라갔다.

한성구는 "바닥에서부터 올라왔다. 올해 내 목표는 선수 등록, 스프링 캠프에 참가하는 것이었다. 목표를 다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기회와 목표가 생겼다. 준비한 대로 실력을 발휘해서 자리를 지키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성구가 달고 있는 배번 93번은 이준호가 신고선수 시절 달았던 번호다. 이준호는 "93번은 기적의 번호다. 방송되지 않아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뛰었는데 내가 정식선수가 됐고, 성구가 그 번호를 달고 또 이 자리에 있다. 다른 선수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결승하고 또 절실한 마음으로 뛰겠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타격을 하고 있는 KIA 이준호. 손목부상으로 스프링캠프에도 참가하지 못했던 이준호는 근성있는 플라이로 주축 선수로 자리를 잡으면서 또 다른 신고선수 신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전지훈련 중인 광주 FC 선수단이 5일 오전 훈련에 앞서 미팅을 갖고 있다.

"여기는 지옥... 수비력 강화 없인 못 빠져 나가"

광주 FC 목포서 지옥훈련

유쾌하게 또 치열하게 광주 FC의 '지옥훈련'이 펼쳐지고 있다. 광주 FC는 지난 1일 목포축구센터에 짐을 풀었다. '수비력 조직력 강화'라는 목표를 내세운 지옥훈련이 시작된 것이다.

광주는 K리그 정규리그 14경기에서 20골을 넣으며 화려한 화력을 과시했지만 실점 역시 28점을 기록하며 16개 구단 중 가장 많은 골을 헌납했다.

지난달 28일 최하위 대전과의 경기에서도 전반전 2골을 내주며 1-2로 패하는 등 광주는 10경기 연속 무승의 부진 속에 A매치 휴식기를 맞았다.

2주간의 휴식기는 전력을 재 정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광주는 목포를 찾아 새벽부터 밤까지 지옥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선수단의 하루는 오전 6시 시작된

다. 러닝과 세트피스 훈련 등을 하며 하루를 여는 선수단은 오전 10시 그리고 오후 3시 두 차례 훈련을 한다. 여기에서 이들의 일과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저녁 식사 이후 선수들은 미팅시간을 갖고 길었던 하루를 정리한다.

지옥훈련과 함께 연습경기를 통한 실전감각 유지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4일 초당대와 연습경기를 가졌던 광주는 5일 오전에는 대불대를 상대로 지옥훈련 중간점검을 갖는다. 실재 없이 전개되는 훈련에도 선수단의 분위기는 뜨겁다.

몸을 푸는 동안에는 곳곳에서 웃음 소리가 터져나오는 등 화기에애한 모습이지만 본격적인 전술훈련이 시작되면 연습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다. 최만희 감독의 호통소리가 계속되면서 선수들의 팽팽함도 끊어진다.

최만희 감독은 "선수들도 그렇고 팬들에 대한 미안함이 크다. 미안한

마음으로 다음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선수들에게 즐기면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강훈이 계속되고 있지만 젊은 선수들이라서 훈련을 잘 따라온다"며 "6월이 고비다.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6월 3경기를 잡는다면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만 6월 성적이 좋지 못한다면 9~16위 싸움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얼굴도 광주 일원으로 함께 하고 있다.

눈물의 결승권을 연출했던 용병 슈바거 부상을 회복하지 않으면서 그라운드를 떠난다. 슈바거의 자리를 대신해 몬테네그로 출신의 미드필더 마르코 스세파노비치 새 전력으로 가세했다. 190cm의 마르코는 몬테네그로 U-19, U-21 대표를 지냈으며 UEFA 컵 2경기 출전해 1골을 기록하기도 했다.

/목포=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① 덕아웃 말말말

SUN "홀런 하이파이브 하교파"

▲은퇴 위기예요 = 외야수 나지완, 후배 이준호가 우익수 자리에서 너무 잘하고 있어서 자리 싸움에서 밀렸으며.

▲날씨 대박! = 훈련을 하고 들어오던 김원섭, 한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면서 훈련하기 힘들다며.

▲신발 예쁘죠? = 새 운동화를 신고 나타난 이준호. 윤석민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으며. 이준호는 지난달 넥센과의 홈경기에서 호수비를 하며 윤석민의 승리를 지켰다.

▲하이파이브를 하지 너무 오래됐어 = 선동열 감독, 타자들이 홀런을 때리지 못하면서 하이파이브를 못하고 있다며. 5일 경기전까지 KIA의 팀 홀런은 14개로 홀런 1위 김정호의 홀런 수와 같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최향남 7년만에 KIA 입단... 2군 합류

후반기 중간 역할 기대

투수 최향남이 5일 KIA 타이거즈와 연봉 7000만원에 입단 계약을 맺었다. 타이거즈와는 4번째 인연이다.

1990년 해태에서 프로생활을 시작한 최향남은 1997년 LG로 이적한 후 2004년 3월 KIA 타이거즈에 재입단했다. 2004년 10월 자유계약선수로 공식됐던 최향남은 다시 2005년 5월 KIA 유니폼을 입었지만 그해 11월 클리브랜드와 계약하며 광주를 떠났다.

2006년 클리브랜드 산하 트리플 A에서 활동했던 최향남은 2007년 한국으로 돌아와 롯데에 입단한 뒤, 2009·2010년 LA 다저스 산하 트리플 A에서 버리고에 도전했다.

2010년 일본 독립리그로 자리를 옮긴 최향남은 2011년 롯데에 재입단했지만 그해 7월 팔꿈치 부상으로 웨이버 공시됐다.

7년 만에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은 최향남은 5일 2군에 합류해 퓨처스리그 경질청과의 경기를 위해 벽제구장으로 이동했다.

선동열 감독은 "중간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타선과 달리) 마운드는 경험이 중요하다. KIA 마운드에는 경험 있는 선수들이 적다. 시즌이 지날수록 어린 선수들이 체력적으로나 경험적으로 힘들어 할 것이다. 아직 최향남의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닌만큼 후반기 정도에 베테랑으로 경기를 풀어나가 주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대호 일본 퍼시픽리그 타자 5월 MVP



'빅가이' 이대호 (30·오릭스 버팔로스)가 일본 프로야구에서 월간 최우수 선수 (MVP)로 선정됐다.

일본야구기구(NPB)는 5일 홈페이지를 통해 퍼시픽리그 타자 부문 5월 MVP로 이대호를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NPB는 이대호가 5월 24경기에서 모두 4번타자로 나서 20경기에서 안타를 쳤고 수훈안타가 7개나 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한국 선수가 일본프로야구에서 월간 MVP로 선정된 것은 1997년 5월 센트럴리그 투수 부문의 선동열(당

시 주니치 드래곤스)과 2006년 6월 센트럴리그 타자 부문의 이승엽(당시 요미우리 자이언츠)에 이어 세번

째다. 4월까지 퍼시픽리그 홀런 1위(10개), 타점 4위(32개)에 올라 있는 이대호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타율 0.322(87타수 28안타), 8홈런, 19타점을 기록하며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창사60주년 기념 임흥길 대장과 함께하는 밀레 '국립공원 16좌 고객원정대' 모집
참가신청: 광주/전라지역 밀레 매장서 접수
참가특전: 참여하신 모든분께 밀레 기념품 증정
두번째 산행: 6월 21~22일(무박2일) / 주왕산
문의처: (주)밀레 마케팅본부 (02-3153-3143, 4)
주최: MILLET | 주관: Mtour
후원: 65 광주일보사

호남제일 음식문화를 사랑하는 아리랑하우스 여/름/매/뉴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준비하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홀플러스 건너편)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www.geumsoojang.com